# 김용민브리핑

## 2017년 1월 7일 토요일

#### 발행처 일곱시간행불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Ĺ	i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sup>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sup> 정성농장홍삼	041-754-0884, 010-9754-6972 jeongseongfarm.com
<sup>시대와 삶을 함께 읽는다!</sup>	창작과비평사 031-955-3333
한국현대생활사	goo.gl/YDYjDW
바로 잡힌 골반, 건강한 인생	070-8220-5796
바디로직	store.bodylogic.co.kr
<sup>무료 웹 애니메이션 채널</sup>	032–258–6261
좀바라TV	zombara. com
최고급 러시아 냉동대게 대게직거래장터	1644–9047 cafe. naver. 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령이 동! 장 청소는 미궁장사랑	070-4115-0365, 010-2892-0365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7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b>매트리스엠</b>	www.mattressm.com
<sup>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sup>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일반 짜장 파스타 맛에 취했다	070-4217-7179
킹닭갈비	goo.gl/XYfR9D
<sup>김용민 브리핑 대리운전</sup>	1522-9687
브리핑대리운전	박근혜 구속시 1회 무료이용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킨텍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리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 <b>담채김</b> 치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운전자보험카페	cafe. daum. net/7000kim
내 아이 만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b>와우전복</b>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b>연지연곰탕</b>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 >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 '부림사건' 판시의 수준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서 석구 변호사의 발언 말입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따르지만 '구스타프 라드부르흐' 가 지적했듯이 상대주의적 관용을 원칙으로 한다.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 실제 소크라테스도 배신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도 군중재판에서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의 함정을 선동하는 언론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에 의해서 증폭될 때는 민주주의 다수결이 굉장히 위험하다."

다수결은 항상 정의로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 지지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까지 동의 했고 국민여론 80% 가까이가 지지했던 것이지요. 물론 그럼 에도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은 항상 다 무조 건 옳은가.

이런 서석구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는 전혀 딴 소리를 했습니다. 다수결의 횡포를 반성하자며 쟁점법안 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통과 되는 국회법 즉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 저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 것입니다.

서 변호사는 당시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하여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 국회법 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면 서 다수결 원칙을 크게 옹호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를 3분의 2 또는 5분의 3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스스로 국회 가 족쇄를 차고 활동을 제한한다.

내가 다수면 다수결, 남이 다수면 다수결 거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 ■ 1월 2일(월) 1부 | "특검, 삼성 이재용 반드시 구<del>속</del>한다"

[오프닝] '박근혜 예수 비유' 변호사의 표리부동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베일 벗은 주사 아줌마 '백 선생'...73살 '불법시술' 전과자
- -서청원 처까지 "참석말라" 전화 돌려…보좌진은 입장 저지
- -문재인 비판 의원들에 '문자 폭탄'…문재인 "자제"호소 [최동석 칼럼]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
-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 :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설계를 위하여 [김프로이드] 김프로 전 SBS기자, '씨네마스타' 제작자
- -특검의 집요하고도 강력한 삼성 이재용 수사…그 끝은?

#### 법꾸라지 김기춘

## 경향신문 김기춘, CCTV·휴대폰 기록 삭제

박영수 특검의 압수수색 결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 장 자택에 설치된 CCTV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기춘의 휴대전화 역시 연락처 등이 지워진 상태였고 자택에는 문서도 거의 없 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달리 김기춘이겠나. 특검은 김기춘의 이 같은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김기춘은 최근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다가올 특검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 불법의 온상, 청와대

# **힌거레** 정호성 "박근혜는 P, 최순실은 S"

대통령 박근혜가 정호성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정호성이 따로 만들어 소지한 '대포폰'으로 전화한사실이 확인됐다. 정호성에게는 '청와대 업무폰'이 배정돼 있는데도 말이다. 이 대포폰은 정호성이 주로 최순실과의 통화를 목적으로 개설한 것인데, 여기에서 최순실이 국정운영을 지시하는 통화녹음 파일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박영수 특검이 확보한 정호성의 대포폰 통화내역에는 'P'와 'S'라는 이니셜로 표기된 전화번호가 자주등장한다. 정호성은 검찰 조사에서 "S는 최순실이고, P는 박근혜"라고 진술했다.

# SBS "박근혜, '장시호 예산'도 직접 지시"

대통령 박근혜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설립한 동계스 포츠 영재센터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감사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 원 내용을 박근혜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보 고 후에는 박근혜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통해 장시호 의 영재센터를 적극 지원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장시호의 영재센터는 설립 1년 반만에 문화체 육관광부 예산만 6억 가까이 지원 받았다.

> 국민TV 조합원이십니까? 조합비 납입으로 대선 승리의 길 톱시다

## YTN '주사 아줌마'는 불법시술 전과자

청와대 보안손님으로 의심받는 주사 이줌마, 이른바 '백 선생'의 실체가 YTN 취재결과 확인됐다. 백 선생은 73 살의 불법 시술 전과자로 서울 논현동 일대 부유층 집을 찾아가 불법 시술을 일삼다가 구속까지 됐다. 특검은 백 선생을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핵심인물로 보고 조만간 소환 조사와 강제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 바쁜 특검

# 연합뉴스 정유라 "한국 안 가겠다"

덴마크에서 구금돼 있는 정유라가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귀국하겠다'는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를 철회했다. 정유라가 돌연 마음을 바꾼 것은 체포된 지 닷새 만에 가진 아들과의 면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머무는 덴마크 구치소 생활이 한국의 구치소보다 여건이 좋다는 점도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유라의 '조건부 귀국 의사'에 대해 특검 측이 "범죄자와의 협상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것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정유라의 송환 문제는 장기전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싸가지없는 자들, 참 목불인견이다.

## 중앙일보 화이트리스트, 문화계 특혜 논란

박영수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반대로 아무개를 적극 지원하거나 추천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도 작성되고·관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특별검 사팀이 확보한 명단에는 '추천'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수사팀에서는 이를 '화이트리스트'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어떤 경로와 이유로 정해졌는지확인 중이다.

#### 여의도 상황

# 한 거래 서청원 아내 "참석 말라"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집한 상임전국위원 회가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열 의원들의 방해로 무산됐 다. 당 지도부의 일원인 비상대책위원 일부를 선임할 예 정이었는데 불발된 거다.

#### 김·용·민·의·조·간·브·리·핑 SINCE 2004

한 핵심 당직자는 "서청원 의원 아내와 측근 의원들이 전국위원들에게 전화해 불참을 요구했고, 현장에서는 보 좌진들이 회의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을 막았다"고 말했 다. 또한 서청원 의원은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강 요하고 협박 했다며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자제' 호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한 의원들이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 연구원이 작성한 '개헌 저지 보고서'가 발단이었다. "민 주연구원이 벌써 대선후보가 확정된 것처럼 편향된 전략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비판한 김부겸 의원에게는 3000개 가 넘는 항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개혁보 수신당 정병국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전 대

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가 '문자 폭탄'을 맞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 북에 '동지들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 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고 결코 상처를 줘서는 안된다"라며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호소했다. 경향 신문 보도, 문재인 지지를 넘어선 이런 식의 공격적 엄호가 과연 문재인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반문재인 정서를 확산시키기 위한 공작세력의 개입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자제 호소에는 진심이 느껴진다.

#### 정부의 쌀 대책

## 朝鮮日報 정부 "벼 심지 마오"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약 1억평 줄이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4.5% 줄어든다.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방법은 농민들에게 벼가 아닌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조선일보나 정부는, 외국쌀을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밥쌀 소비가 크게 줄어드니까 이젠 농민들을 타박한다.

아무리 그래도 외국 쌀보다는 우리 쌀이 천배만배 낫지 않겠나?

#### 소녀상 보복

### **중앙일보** 일본, 통화 스와프 논의 중단 통보

'소녀상'을 둘러싸고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재를 취할 움직임이다. 일본 정부는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를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외환보유액 고갈에대비해 특정 국가와 통화 교환을 약속하는 협정이다. 또한 아베 신조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에게 부산 소녀상 문제가 한·일 정부 간의 합의를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는 답해야 한다. 아베한테 소녀상과 관련해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우리 국민은 아무 약속도 없었다고 알고 있다.

